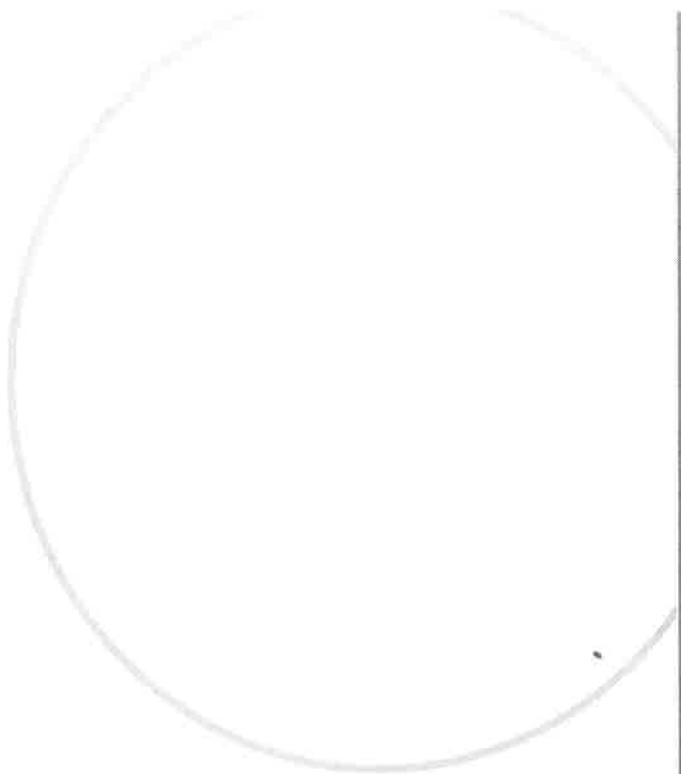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문 분석

④ **달라져서 - 강연 (정보전달)**  
(= 발표, 주제만 조금 이해)

1. 주제 : **개인별 영양별 표시 방법.**

2. 말하기 전략

- 정량과 상대적용
- 시각자료
- 선택사항 → 인용

3. 내용 전개 (연거)

- 1) **집약된 표현 변화**  
- 제품의 중내용량
- 2) **영양성분 표시 변화**  
- 매차 만들, 권면대상
- 3) **성명표의 방식**  
- 다른 성분 변화  
- 약용 비율 표시

⑧ **지명에 지서어 '이거' - 자주 등장!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확인하면서 읽기.**  
(단위표와 - 지서어 → 글의 응징성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제 1 교시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안녕하십니까?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용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할란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단백질, 전인 섬유**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성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3.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하는 1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상위**에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1-2**

4. **단위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관련** 기법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 ㉢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시제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영양 성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열량	000kcal		
탄수화물	00g	00%	00%
단백	00g	00%	00%
지방	00g	00%	00%
포화지방	00g	00%	00%
트랜스지방	00g	00%	00%
나트륨	00mg	00%	00%

<개정 후 표시 도안>

영양 정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총 내용량당	100mg	00%	00%
나트륨	00mg	00%	00%
단수화물	00g	00%	00%
당류	00g	00%	00%
지방	00g	00%	00%
트랜스지방	00g	00%	00%
포화지방	00g	00%	00%
탄수화물	00g	00%	00%
단백질	00g	00%	00%

㉠ ○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한량** 표시 기준이구나.

㉡ ○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은 **할란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었으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 단문에서 함량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고, 단 문에서 함량은 개정해서 그 비율을 표시하게 됨!**

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의무적으로 할란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문항 분석

- 1. 말하기 전략 → **가령의 말하기 정량과 상대적용, 정량의 주지점, 매차로 할란이 아님** → **선택지의 키워드를 지어내며 풀이.**
- 2. 듣기 전략 → **매차 자료를 통한 듣기** → **좋은 내용으로 풀이하면 됨.**
- 3. 듣기 전략 → **주지점** → **애비 지면에 나와 있는 것은 틀리면 안됨!** → **내용과 관련이 없음!**

# 2 국어 영역

[4~7] (가)는 '포레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포레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

- 2027년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포레 상담 요원을 모집합니다. 포레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대상: △△구 지역 내 고등학교생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가)  
/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포레 상담을 받으려서 많은 위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레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레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최근부터 참여한 공부방 봉사 활동은 상담에서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은 초등학교들의 공부할 도와주는 활동인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제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후시 공부 외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져오기 시작했고 이후 수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방 봉사 활동은 물론, 상담을 할 때에도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좋은 포레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3. 최근에는 상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저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포레 상담 요원 역시 포레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제가 포레 상담을 받으려서 얻은 가장 큰 힘은 포레 친구가 전해 주는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포레 상담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①

(나)  
면접 대상자: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입니다.  
면접자: 안녕하세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1-⑤  
면접 대상자: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접자: 다양한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포레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면접 대상자: 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데요,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포레 상담은 생각의 눈높이가 맞는 포레 친구와 함께 고민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평소 포레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 네,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며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접자: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상담에서 말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1-③

면접 대상자: 태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①

면접자: 네, 맞습니다.

면접 대상자: 태도란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태도는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④

면접자: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태도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 이번에는 상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레 친구가 최근 성격이 많이 떨어져 부모님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여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C]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면접 대상자: 먼저 포레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며 상담을 하겠습니다.

4.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 속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기소개서에는 ㉠ 지원 동기, ㉡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 ㉢ 성격의 강단점, ㉣ 지원 분야의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 ㉤ 지원자의 다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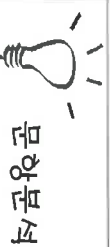
5.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활용경관, ㉢ 관경경관**
- ㉣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여 지원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문분석

① **자본유형 - 가치의에서**  
1. 자본유형 = 4번 <보기>  
2. 자본전략  
영역 - 경험 - 자결정 - 경험 활용  
② **다양유형 - 변경**  
1. **자본전략 / ㉡변경전략**  
= 6번 <보기>  
2. **수계 안의 법**  
= (자본 + 변경)  
⇒ **1506 B(123) 풀이본지!**



문항분석

- 4. **자본** <내용생성>
- 5. **자본** : <내용적>

지문분석

국어 영역

- ③ 지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자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료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A]~[C]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면접은 직무를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성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대목이다. 직무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료의 과정이 요구된다.

질문 분석	답변 전략
① 자기소개서에 <b>히</b>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군.	②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답변해야겠군.
②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군.	③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야겠군.
③ 지원 분야의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며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군.	④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해야겠군.

질문 분석	답변 전략
① [A] ①	①
② [A] ②	②
③ [B] ③	③
④ [B] ④	④
⑤ [C] ⑤	⑤

- ④ 직종유형 - 전문직(특)
- 1. 주제: 사내버스 노선문제  
→ 학생 전문직 노선 신설.
- 2. 구성  
문제제기 - 원인분석  
→ 해결방안 제시.

7.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3 / 16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시청 시내버스 운행 정책 담당자

[화제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A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단지 학생들을 대표하여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교들은 시내에 위치한 반면 2015년 2월에 생긴 A 단지는 시 외곽에 있어 이곳에 사는 많은 학생들은 시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자기용을 이용한 데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번 버스의 경우 A 단지를 지나 시청, 버스 터미널, 중앙 시장 등 시내 주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경유하며 고등학교에 이릅니다. 시내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다른 노선들도 상황은 이와 유사합니다. 통학 시간이 길어서 아침부터 귀찮아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등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기피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기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A 단지에서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시내의 너무 많은 경우장을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층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란 통교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A 단지에서 출발해서 지정 정류장만을 경유하여 시내 고등학교까지 직단 경로로 운행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급행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인정한 고등학교들을 묶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하고 A단지 이외의 학생들이 많이 타는 곳을 지정 정류장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방안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문양분석

- 6. **견본** → **답변전략!**
- 7. **면접의 의사소통 방식**. (문-답)  
→ **506B 1번이랑 유사함!**

- 8. **견본** → **설득전략**. <계류해>  
<신뢰성, 타당성, 합리성, 공정성, 실행가능성>  
→ 이 주는 **타당성의 설득 전략** (문, 예설)과 같음!  
→ **비포지티브에도 활용함!**

# 4 국어 영역

9.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전의문의 끝 부분에는 전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전**의 주체에 **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 ㉑ 수요 조서에 따른 버스 운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시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㉒ A단지 학생들이 겪는 등굣길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단지 학생들의 아침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㉓ A단지 학생들의 등굣길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여유롭게 등교할 수 있게 되어 A단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㉔ 학생들의 자기용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을 데리다 주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㉕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A단지의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조교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인터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찍 길을 나서야 되고, 종종 아침밥도 못 먹고 간 배가 있어요."

(나) 'A단지' 고등학교생들의 등교 수단 이용률

등교 수단	자기용	시내버스	기타
조사 시점			
2016년 6월	25.2%	66.7%	8.1%
2016년 12월	44.4%	47.8%	7.8%
2017년 6월	55.2%	38.5%	8.3%

(다) 신문 기사  
스승이가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행하였다. 등교 급행 노선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경우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40분대 통학 시간을 20분대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증가하였다.

- ㉑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다.
- ㉒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원상의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다.
- ㉓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기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겠다.
- ㉔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기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다.
- ㉕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다.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요?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정의 제도물 또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지요?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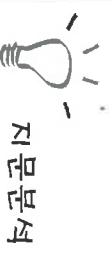
선생님 :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술안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것인듯, 노랗수, 씩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색색이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 그런데 선생님, 만들어진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부터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습니다.

학생 4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명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간'이라는 말은 언더 넷과 '경의'가 합쳐지면서 들어는 말인데, 양말과 뒤통의 뒷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예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사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예요.



지문 분석

⑩ 문법 → 언어형성 : 합성 명사

① 명사 + 명사    ② 관형사 + 명사

③ 명사 + 이문 품사끼리 결합

④ 앞말 쓰는 말 (유래) → 결임말

①) 앞 말 + 뒤 말  
②) 앞 말 + 뒤 말에 세제

③ 생략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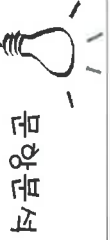
① 1106 중사/비동적 합성어

② 1109 직접성분 분석

③ 1809 합성 명사 / 결임말 (관형사)

→ 국어형성 원리는 정리의 안이 아니라 하

④) 합성 명사  
→ 생략해 분석  
→ 사이사투 포의



문항 분석

9. <표제어> : 교과    a : 전체    b : 다른

10. <내용생성> : 역사 선택지    a : 정확    b : 다양  
③ 이러한    a : 반    b : 다양

지문 분석

1. **국어영역** / **정병사** / **조인만**

- 7. 정병 + 정병 → 조인만
- L. 피생어 (개: 전사)
- ~ 앞 찬성 + 뒤 찬성 → 조인만
- 2. 찬성 전 찬성 전 받는다 → 조인만
- L. 명사 + 명사 → 찬성 명사.

12. 밑줄 친 단어 중 ㉔의 예로 직접한 것은?

- ㉑ 잘 (부사) + 못 (부사)
- ㉒ 새 (관형사) + 것 (대명사)
- ㉓ 요 (관형사) + 사이 (명사)

- 이름 낱말이 아니라
- 채널이 아닌 날 (= "D")
- ㉔ 오늘 (명사) + 난 (명사)
- ㉕ 갈리 + -D + 긴 (명사)

⇒ **반의** 푸는 법  
 "명사는 다 자역!"  
 ㉒, ㉓, ㉔, ㉕, ㉖, ㉗, ㉘  
 (변별력 X)

- 13. 대명사 - 위키의 쓰임
- ⇒ 문법 1차 교재 3차 판권등록
- ㉑ 나경 ㉒ 수빈, 나경, 새
- ㉓ 수빈 ㉔ 새, 나경
- ㉕ 수빈, 나경, 새

문양 분석

- 14. 경제구역
- (1) 경제지대
- 1. 3인칭 / 경제지대 → T 형. (북아?) → ㉑ 나
- 주어. / 선행명사 → T 형 (북아?) → ㉑ 나
- ㉒ 여 광복회 / 2인칭 → T 형 X "나다"

국어 영역

11. <보기>의 ㉑~㉓ 중 밑줄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산생'을 줄여서 '생'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2. '개'와 '삼구'를 결합하여 '개삼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3. '사법'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4. '결정'이라는 형용사로부터 '결정'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5. '비밀'과 '인편'을 결합하여 '비밀인편'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㉑ ㉑, ㉒
- ㉒ ㉒, ㉓, ㉔
- ㉓ ㉑, ㉒, ㉔
- ㉔ ㉑, ㉒, ㉓

12. 밑줄 친 단어 중 ㉔의 예로 직접한 것은?

- ㉑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 ㉒ 언니는 친구들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 ㉓ 아이가 요새에 물리보게 훌쩍 컸다.
- ㉔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 ㉕ 나는 걸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㉑~㉓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고마워. ㉑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는데 ㉒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더언해. 나도 같이 가고 싶는데 ㉓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그래? 그럴 할 수 없네. ㉔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㉕ 우리 다 같이 가지.

⇒ 1차 교재 3차 판권등록 (설명)  
 → '위키'는 (물리) '에서 비롯된 낱말'이다. '물'이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위키'는 '말하는 사람'을 표현하여 (성명)  
 '에 있는 여러 사람'을 뜻한다. '위키'는 '성명'이라  
 '한 사람이 표현'한 것으로도,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는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물'의 성격이 '가'가 되었어.  
 '이'로 '위키'는 '말하는 나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5 / 16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㉑~㉔를 탐구하는 활동은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직접하지 않은 것은? [3점]

- ㉑ 설명 의문문과 편집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㉒ 채언에 결합하는 조사와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㉓ 불림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㉔ 선언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㉕ 둘은 이물 붙이기 위한 선언어미가 사용되었다.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㉑~㉔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㉑ ㉑의 '나'는 '나'와 ㉒의 '있'을 비교해 보면, ㉑을 확인할 수 있고.  
 ㉒ ㉒의 '가'와 ㉓의 '버'를 비교해 보면, ㉑을 확인할 수 있고.  
 ㉓ ㉓의 '말'과 ㉔의 '말'을 비교해 보면, ㉑을 확인할 수 있고.  
 ㉔ ㉔의 '모'와 ㉕의 '모'를 비교해 보면, ㉑을 확인할 수 있고.  
 ㉕ ㉕의 '모'와 ㉖의 '모'를 비교해 보면, ㉑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 2〉  
 ㉑ 모음 마를 나르는 노 [무슨 말을 만하느냐?]  
 ㉒ 저으며 들구미 있는녀 [뚫으며 녹음이 있느냐?]  
 ㉓ 虛空과 버를 보대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㉔ 世榮히 내 활中에 이셔 돈겨 如來 보숨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빌고]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㉑~㉔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㉑ 저기에는 눈이 왔겠다 / 저쪽 저기에는 눈이 오겠지.  
 ㉒ 그가 집에 갔다 / 무척을 찾았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㉓ 내가 떠날 때 피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피가 왔다.  
 ㉔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전학한다고 한다.  
 ㉕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엔 그는 키가 작았다.

- ㉑을 보니, 선언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음.
- ㉒을 보니, 선언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
- ㉓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
- ㉔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언어미 '-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음.
- ㉕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언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15. 단어 분석

- ㉑ 선어미
- ㉒ 선어미
- ㉓ 선어미
- ㉔ 선어미
- ㉕ 선어미
- 15. 사전편 → 역사나 문화 관련 사전 편



지문 분석

국어 영역

19. <사리의 방법적(의)인>

- 이거 틀린 건데 꼭 읽어야
- 1) 차례 뒤의 : 발췌한 언어 = 서술어
- 2) 찬반법 : ① 사리의 대상은 가름에서 찾는다.
- ② 사리의 대상은 선택지에서 찾는다.
- ③ 두 대상의 특성 (주상적 / 구체적) 이 가장 유사한 것 찾는다.
- ④ 사리서 개편시 ≠ 변변 찬쟁이
- ⑤ 리면같은 경향에 = 찬반은 중의 듣다 → '각자의 의논' ≠ 찬반하여. → 격화.

- ① 헨슨이 쿠벨리우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생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각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콘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인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경계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벨리우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문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벨리우스가 콘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콘수스가 쿠벨리우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큼 제시해야 한다.

120~2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풍상 이느냐 내게 물어라. 풍리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피어린 화물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풍리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날인다.

먼 길에 온세. 풍리타너스 피어린 화물 제, 너는 그 길을 나의 같이 원한다 22-㉑

이제 너의 뿌리 같이 나의 영혼을 끌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풍리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더!

수고한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풍리타너스 너를 맞이 할 것은 흙이 먼 곳에 따르이 있느냐? 나는 움직인 줄을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22-㉒ 그것을 이룬다면 별과 나의 사랑하는 것이 열린 길이다. 22-㉓ 22-㉔ -전현승 「풍리타너스」-

7 / 16

- (나) 신평! 쓰인 문에 하나 짚는 영광 달이 이제 말물처럼 밀려오다.
- 미운친 짐과 배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리 나가다.
- 한밤에 ① 환로 보는 나의 ② 방황 호수같이 동국이 ③ 되고 넘치노라. ④ 22-㉕
- 쫓그리고 앉은 한열에 ⑤ 환로 이마가 유달리 환조름 고와라. 22-㉖
- 연연된 ⑥ 물음 수묵색으로 칠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기도다
-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냐, 오동나무 꽃이 아보 건디에 향그르네다. 22-㉗
- \*궁거워 : 궁핍하여. ~정지용, 「달」-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빈부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주점을 보으로 있다.
- ② 피어린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층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표현 기법> (개별 문장은 것 대어 것)

- ① 반복적 호명 (반복) → ② 상층적 이미지 20번
- ② 색채어
- ③ ④ 경제적 (선기발언비각인)
- ④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㉒은 화자의 민중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㉑은 화자가 경험한 자원을, ㉒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 한다.
- ③ ㉑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㉒은 화자의 단단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㉑은 화자의 격박한 처지를, ㉒은 화자를 둘러싼 고조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㉑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㉒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가 <㉑, ㉒ 문법적 의미 파악> ① 호로 반 나비 등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0번

김현승, 「풍리타너스」 (수능원성 5회)

해제: 이 시는 '풍리타너스'를 의인화하여 '팬현승'이며, 그와 인연의 원로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왜로부터 시인들은 자연물을 삶의 동반자나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시적 감흥을 노래한 경우가 많았다. 이 시 또한 나무를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이 것처럼 표현하면서 나무의 변형없는 현상을 통해 고결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어느덧 피어린 하늘에 젖어 있'고 '있는 것으로 그늘을 날인다'는 '풍리타너스'의 모습을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중첩시키면서 비망적인 삶의 길을 노래하고 있다.

- 주제: 고독한 삶의 번려를 지향하는 마음
- 구성
- 1연: 피어린 공을 가진 풍리타너스
- 2연: 풍리타너스의 넘쳐난 사랑
- 3연: '나'의 반려자의 풍리타너스
- 4연: 풍리타너스에게 영혼을 끌어넣어 주고 싶은 소망
- 5연: 영원한 번려자가 되기를 영원함.



지문 분석

국어 영역



경문: (명왕하더) 아버지 어머니의 자는..... 24-3

최 노인: 아니면 께잖이나?

어머니: ㉠ 어보 그런 잠을 전세로 취서 뵈 하신게요? 24-4

최 노인: 끝세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 드려? 사뭇이 뵈이라들가.....

경문: '사뭇'은요? 말뚱이예요?

최 노인: 그래 '사뭇'은요? 말이다? 그건 차라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헤 뵈까 하도 이 잠을 보였적. 그래 얘기가 적이 익이 가는 편인데 끝세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매치기로 쳐 나작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원이던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기계만 해도 백만 원은 뵈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뵈회..... 24-4

최 노인: 뭐가 뵈회야?

경문: ㉡ 아버지께서 이 집을 권오실 줄만 알았어요 24-4

최 노인: 응! 너희들은 모두 완수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도 이 집을 달려 버린 공리불만 하도 있구나라 이

친하에 뵈일 것들! (형적 뵈속 일어선다.)

어머니: 그런 리가 있겠어오? 24-5

최 노인: 뵈기 싫어! [화준발]으로 나오려)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리문 하나도 없애! 온찬 뵈뵈도 안 드는 집이 뵈이 뵈단

말이던 뵈이 뵈! (하더 최조반을 힘부로 착신작성 것뵈고

뵈이 뵈친다.)

어머니: ㉢ (뵈발로 뛰어나리다) 어보 이게 무슨 것이오! 그렇게

정성을 뵈여서 기관 것들..... 원..... 당친도.....

최 노인: 내가 정성을 안 뵈인 게 뭐가 있어..... 그는 모든

인애 정성을 뵈여지던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세도 말어! 24-5

~ 차변식, '참포기' ~

\* 사뭇'은요(Straßfieber): 오락의 한 종류

23.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 장년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 인물들의 부각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 인물의 동태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독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 ㉡: '경제'의 밑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5. <보기>와 ㉠~㉣를 관련지어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순전히 촉발물 안외적이라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 '경제'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애진과 단리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데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 '부대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동경을 증기하게 되는군.
- ㉢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 '최 노인'은 ㉢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보내려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친사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X
- ㉤ '최 노인'은 ㉢를 통해 친 문제에 대한 자신의 회포를 '경수'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준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 중심인물이 집을 파기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 중심인물이 현세의 고통이 다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제하는 장소이다.
- ㉤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문양 분석

23. <포켓> 포켓

→ 개천어 보는 것 보의 전성!

㉠ 언어유희 ㉡ 장년의 전환 ㉢ (시완 전환)

24. <간접지 지문>

: 인물의 대사, 행동 → 인물의 심리, 태도 지문

→ 문맥 (완전) 을 통한 이해가 필요!

㉣ 어찌, 경수 → 둘다 잠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세'라는 밑에 밑받침은 막아지킨 것은

25. <보기>와 ㉠~㉣를 관련지어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인물의 대사, 행동 → 인물의 심리, 태도 지문으로 풀이.

㉢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선택지: 기복 + 대비 → 인애 <자포이>를 둘러싸는

26. <포켓의 상징적 의미>

→ '리조발'의 상징적 의미 보 '집'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면 리 조발은 뜻!

# 10

## 국어 영역

[27~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코린 역학제** ㉠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예측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 사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2]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 ~~이전~~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

[3]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만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취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직언스럽게 ~~직접~~ 느끼게 될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4] **코린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가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가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만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같은~~ "코푸의 수도는 터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코푸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한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29-0

[5]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가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가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같은~~ 가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가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가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같은~~ 가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가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가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같은~~ 그는 가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가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같은~~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6]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같은~~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할 있는 발음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진전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진전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LP이면 Q이다. 이는 '진전문과 그것의 진전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진전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진전 긍정 규칙이 성립 하려면 ~~같은~~ 문장과 그것의 진전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진전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같은~~ LP에서 조건문의 진전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진전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진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 LP: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 달은 천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지문 분석

- 1. **양자역학**  
→ 실용적 상대 이론
- 2. 미시세계 - 두 상태가 공존  
→ 관찰은 통해 회전 방향 결정  
← 이산적인 : 리터저.
- 3. + 양자 컴퓨터 연구  
→ 논리학 공부
- 4. **프리스트**: 가짓말쟁이 문장  
⇒ 정의 용어 거짓  
⇒ 가짓말쟁이 문장 = 자기 지시적 문장  
○ 참인 동시에 거짓 (상호 배타적, 상대적 공존)
- 5. LP: 비교전 논리  
→ 진전 긍정 규칙 성립 X.



문항 분석

- 29. <전제 풀음>  
양자역학 = 관찰 전이 팽이의 회전 방향 안수 X.  
→ 이산적인 → 배: 관찰 X → 한 존재  
리터저 (비판적) (관찰)

10 / 16

### 지문 분석

28. <보기> 정답.

㉠ 3개의 이진수 → 2<sup>3</sup> = 8개

3개의 이진수 → 2<sup>3</sup> = 8개

일반 컴퓨터 → 8번에 처리

양자 컴퓨터 → 3번에 처리

⇒ 8배 빠름

㉢ 1개의 이진수 = 2<sup>1</sup> = 2개

일반 컴퓨터 → 2번에 처리

양자 컴퓨터 → 1번에 처리

㉤ 처리 이후 → 비트로

처리, 이진수 ⇒ 24

= 16개.

㉥ 3비트 - 2개의 블록

6비트 - 6개의 블록

⇒ 3번에 처리.

29. <개념어에 대한 이해>

㉠ 문장을 지시하는 것 X.

㉡ 고전논리에서 어떤 진술은 참

중, 거짓이어야 할

㉢ 이진논리는 고전논리.

㉣ 진리치 = 참, 거짓.

㉤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필리 '논리' X.

⇒ 이 문제의 의미

㉦ 선택어의 개념

→ 자문과 개진!



### 문양 분석

28.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의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 양자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비트가 필요하고 12비트 이진수는 모두 2<sup>12</sup>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양자 컴퓨터는 상테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처리량 X  
㉡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2배 빠르다. 8배 X  
㉢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X  
㉣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배 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같다.

29.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영어에는 문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X  
㉡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참이다.  
㉢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거짓이다.  
㉣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참 거짓.  
㉤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11 / 16

### 국어 영역

30. 뒷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I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는 '거짓'이다. 참+거짓.  
㉢ IP에서 ㉡와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거짓.  
㉣ IP에서 ㉡와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고전 논리에서 ㉡와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양자 이진법.  
㉥ 고전 논리에서 ㉡와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31.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였고, B는 I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포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이해의 (㉠)~(㉢)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 전자 c는 관찰하기 이전의 S라는 상태에 있다.  
(㉡) 전자 c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 (㉠)과 (㉡)의 전자 c는 동일한 전자이고 (㉢)과 (㉣)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A는 (㉠)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패의 <관찰 전>  
㉡ B는 (㉠)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관찰 후>  
㉢ A와 B는 모두 (㉢)이 '참'일 때 (㉣)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관찰 후>  
㉣ A는 B와 달리 (㉡)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고전 논리.  
㉤ B는 A와 달리 (㉢)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관찰 후) 거짓.

32.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의기(依機)하면      ㉡ ㉡: 알지(諳知)하게  
㉢ ㉢: 소지(所持)하게      ㉣ ㉣: 계기(計機)된다  
㉤ ㉤: 부합(符合)한다

31. <보기 정답: 사례>

→ 고전논리 / 포리스트 각각 양반 갖는 문

32. 여하의 문맥적 의미.

→ 19번 개관 참고! 서울의 대우는 책에서 선택어는 아니다.

㉠ P: 참+거짓 → A: 거짓 ⇒ ㉡ = 참+거짓  
㉢ ㉠ P: 참+거짓 → Q: 거짓

# 12

## 국어 영역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큼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겠다.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만 말이냐? 나는 어디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로산네 풍조참의 승전 말고, 이 고을 풍편(風편)만 하신다면 어떤 이별 없을 것을, 생글 나을 일을 당하니. 이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키하니. 누구를 탓하겠느냐라는 속결임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내 말이 다 못된 말이니, 아무튼 관외까지.」

[A] 춘향이 대담히되, 우리 덩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기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다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별 못 데라하겠소? 진정 못 데라하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문내 아니 데라가 시라 하오? 정 아니 데라가할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게 앉으면 광한루에서 날 조라하고 ㉠ 명물(明物) 새 준 것이 있으니, ㉡ 소치(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남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시의 귀공자 편을 들어 죄소지키 시면, 그 소치를 덧받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 가서 순시포객 소경(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관직 하직만 부치면 순시포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하겠소! 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영조와 현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차대부라 여기까지 칭탁하여 또다시 순시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관결문을 모두 덧붙이어 꼰꼰 말이 꼰고 **관판장안** 덕만가호라나 결식 하버 다니다가, 문 한 폭의 말이 언저서 풍이전에 불어가 바리 뿌경 하나 시고, 지전으로 불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애다 언문으로 ㉤ 상연(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개제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일곱 님이 능에 거동하십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狹連軍)의 지게창이 들어서며, 굶은 양산이 따라오며, 일곱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활락 뛰어 내달아서 바리뿌경 손에 들고, 줄이 붙어 멩백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聲)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삼음적구!**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고라 마르고 죽은 후에 **뉘이리도 삼수감신**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케신 처녀에 집을 지어, 발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33-㉡

이별이란 두 글자 만은 사말은 나의 백년 인수로다! 친시황이 권서(淸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모냐? **백랑사(白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뿔을 친히 **장사** 임우에게 주어 **힘껏 돌리매**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실내** **옥좌전에** **새아름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평하는** **상과가** **떠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월내** 34-㉢

~ 작자 미상, 「춘향전」 ~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가** 이별이로다 **춘향**이 **가** **도련님** **앞에** **바라** **달려** **들어** **가** **돌리**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 **리**다 **나를** **두고** **가** **겠**으면 **홍포화(紅浦火)** **모** **진** **불**에 **다** **사** **르** **겠**으면 **사** **르** **고** **가** **서** **오** **날** **살** **려** **두** **고** **는** **못** **가** **시** **리** **라** **잠** **을** **데** **없**으시면 ㉠ **삼단간**이 **좋은** **머** **리** **를** **휘** **회** **청** **청** **감**이 **취** **고** **려** **도** **날** **데** **리** **고** **가** **서** **오** **살** **려** **두** **고** **는** **못** **가** **시** **리** **다** **날** **두고** **가** **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또는 **칼** **로** **나** **오** **내** **목** **을** **베** **겠**으면 **베** **고** **가** **서** **오** **날** **살** **려** **두** **고** **는** **못** **가** **시** **리** **라** **누** **어** **두** **고** **는** **못** **가** **시** **리** **다** **날** **두고** **가** **겠**으면 ㉡ **양천수(鰲川水)** **맑은** **물** **에** **다** **던** **지** **겠**으면 **던** **지** **고** **나** **가** **서** **오** **날** **살** **려** **두** **고** **는** **못** **가** **시** **리** **다**

「이리 한참 회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밤저는 분분하여 나귀 입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나귀** **네** **발** **로** **동** **풍** **꽃** **이** **춘** **향** **기** **슴** **을** **찰** **때** **안** **나** **면** **생** **각** **이** **절** **로** **나** **그** **때** **에** **이** **별** **별(別)** **자** **대** **인** **사** **랑** **나** **와** **한** **백** **년** **대** **인** **수** **로** **다** **깨** **치** **리** **로** **다** **백** **랑** **사** **종** **쓰** **고** **남** **은** **철** **뿔** **로** **친** **하** **장** **사** **항** **우** **주** **어** **이** **별** **두** **자** **를** **깨** **치** **리** **로** **다** **할** **수** **없**이 **도** **련** **님** **이** **떠** **나** **실** **때** **양** **언** **이** **준** **비** **했** **던** **주** **안** **을** **맞** **추** **어** **놓** **고** **풍** **고** **후** **겨** **리** **진** **제** **문** **어** **전** **북** **을** **찰** **들** **어** **놓** **고** **잡** **수** **시** **오** **참** **수** **시** **오** **이** **별** **당** **군** **이** **잡** **수** **시** **오** 36-㉣

언제든 삼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건** **진** **밤** **에** **정** **실** **홍** **질** **로** **인** **연** **을** **맺** **고** **백** **년** **삼** **자** **연** **약** **할** **때** **물** **을** **두고** **멩** **세** **하** **고** **산** **을** **두고** **증** **삼(曾添)** **되** **자** **더** **니** ㉤ **삼** **수** **증** **삼** **은** **간** **곳** **이** **없** **고** **이** **제** **와** **서** **이** **별** **이** **란** **웬** **말** **이** **오** **잘** **가** **서** **오** **잘** **있** **거** **라** **산** **점** **혈(山點血)** **수** **중** **중(水重重)** **한** **때** **부** **더** **편** **인** **히** **갈** **가** **서** **오** **나** **도** ㉡ **영** **년** **양** **춘** **가** **련** **이** **풀** **이** **오** **면** **또** **다** **시** **상** **봉** **할** **까** **나** ~ 작자 미상, 「춘향이 별가」 ~

\*증삼: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양춘가련: 따뜻하고 좋은 봄철.



(가) 전항선.

(나) 주향이별가. 이별.

→ (가)와 같은 뉘앙스.

12 / 16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수능완성 2회)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게 소설이다. 표면에는 이몽룡과 퇴기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주체 의식을 담어내고 있다. 춘향과 몽룡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춘향이 정절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이몽룡이 탐관오리를 척파하는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시문은 이몽룡이 남원을 떠난 후 신관 사포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목에 간허 고초를 겪는 가운데 불길한 꿈을 꾸고 불안감에 휩싸여 맹인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청하는 부분이다. 꿈을 소재로 춘향이 처한 상황 속의 불안한 심리와 고뇌가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몽사의 언행을 회화화함으로써 관객에게 웃음을 주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있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춘향은 남원에 사는 퇴기 월매의 외동딸이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인연을 맺지만 이 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여 목에 간허고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임행사가 되어 내려온다. 변학도의 생일 잔치날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채하게 이사를두하여 부사를 파직된 뒤 춘향을 구해 내고 백년해로한다.



지문분석

작자 미상, [소출항기]

(수능특강)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조선 후기 심이잡기의 하나이다. 「춘향가」에서 관객들이 애호하는 부분인 출항과 이 도령이 만나는 기별 대목과 이별 후 춘향의 슬픔 대목을 조합하여 「출항가」의 정서적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출항가」의 인기 대목들을 선택적으로 축약, 변형했기 때문에 내용 전개상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져는 한계가 있다.

주제 출항과 이 도령의 만남과 이별 후 춘향의 슬픔

구성

- 1~10행: 춘향이 이 도령에게 자기 집을 알려 줌.
- 11~13행: 춘향에 대한 이 도령의 연정
- 14~18행: 이 도령과 이별한 후 춘향의 고독과 슬픔

국어 영역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서는 불기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출항'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출항'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출항'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자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출항'은 자신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상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도련님'의 마음을 위안하고자 '출항'이 쓴 글이다.
- ㉢ ㉣: '도련님'이 자신의 부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 ㉤ ㉥: '출항'의 원미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 ㉦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 ㉨ ㉩: '출항'이 '춘향'과의 합을 빌려 '입담'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는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 ㉣는 조원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 ㉥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화회함으로써 양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 ㉧는 기다가 어긋나 버린 사경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내성파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여러 작품에서 '출항'은 다양한 편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출항'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수동적 편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편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경쟁적 편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차별한 편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출항'은 단대 편모의 시각을 대변하는 편모를 지니기도 한다.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출항'의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안티갠다는 모습을 통해 /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출항'의 적극적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의 권을 고난을 만하며 /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 문체 해결책을 강구하는 '출항'의 치밀한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용서하며 아쩍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 서글픈 현실을 견뎌하려는 '출항'의 수동적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절미로 깨뜨리듯 차이는 모습을 통해 / 복받친 감정을 표출하면서 단정하는 '출항'의 격정적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서책업자는 「출항 전」을 (가)와 같은 선택문 소설로, 유용적 노래를 지은 작가의 담담층은 「출항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작가로 세력했다. 서책업자는 과장되고 내지 않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문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작가의 담담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지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적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사를 반복해 정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인속되지 않은 정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① [A]에서 '생글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겠군.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 문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겠군.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하를 세 시한 것은' / 정중을 작품의 내용에 비로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겠군.

④ [B]에서 '뜻 거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겠군.

⑤ [B]에서 화자가 '배안지'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 일순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X

13 / 16



문양분석

33. 양반의 대서 → 사옹이해.

34. 35. 서재의 의미 → 양적 양백!

# 14

## 국어 영역

[38~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2] **뒤르켐**은 오스트 리엔의이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 한다. 3] 이 부족 사람들은 문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 하여 이 상황이 **상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 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 하는 상스러운이 무엇인지 시금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4] 집합 의례가 끝난 뒤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상스러운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 아간다. 이로써 단란히 먹고사는 문체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상스러운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2]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 으로 끝이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3]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상스러운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상스러운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 것이다 여긴다.

3] 뒤르켐의 스벤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 으로 귀속시킨다. 그들은 상스러운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형성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뉘뉘는리는 **위기 시기**에 원로 층과의 전담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는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된 목표와 이익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4]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가 기대가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뒤르켐의 스벤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호르몬의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4] 현대 사회는 뒤르켐의 스벤서의 이론을 받아들여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신으로 사회적 공인 문체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인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5] 따라서 이 요소들을 통합 하는 사회적 공인은 유연성이 극대화될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6] 현대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문명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관찰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기 여기에 있다.



38 <위계적개방>  
→ 큰 전체 수권의 전개방식 (= 큰 개방)

1806 22번 '선명방식'  
→ 문헌 수권의 전개방식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 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동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인의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e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38. 앞글의 **는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중심 회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 중심 회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 하고 있다.
- ㉢ 중심 회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 중심 회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 중심 회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39. '집합 의례'에 대해 3]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버릴 린다.
- ㉡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상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 ㉤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체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체로 규정한다.

40.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이해관계 → 보편적 가치 (상스러운)
- ㉡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지문 분석

1] 뒤르켐 → 집합의례 (부족)

공동체 결속

문제 상황 → 성/속 판별

→ 성 개념을 → 역적 공동체 재생

→ 생계활동 - 성과 연결된 주역지대

2] 현대사회 →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

3] 프랑스

→ 기능적 이론으로 귀속시킨다

위기사: 문명: 이해관계 → 보편적 가치

→ 집합의례 → 사회 통합 회복

(= 유기체, 항상성 기능)

4] **이해관계** → 사회적 공인

집합의례 자연적 권력

→ 그 결과로 집합적 X 과정

현대사회 = 사회적 스벤슨 본래

자율성

⇒ 사회적 공인 = 일반성

문명적 실천

5] 현대사회

→ 사회적 공인 요소 (행사)

6] 결론: 과정 (사건 발생)

7] 전개방식: 예시, 비교, 대조

39. 뒤르켐에 대한 이해 → 내용이래

40. 앞뒤 문맥 → 다만, 말 바꾸기 조건. (상스러운 → 가치)





지문 분석

그게 아니라, 차어, 일만해도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신 것 같은 말예요.

그 조건 또 무슨 소리가.

이제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이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좋중 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여짜다기는 또 말씀해 보시는 게요. 처음엔 일부러 물어 보면 철의 영롱한 미소를 하시는 게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다가 됐는데, 끝세 그게 아니예요.

드내게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이 그는 손가락을 놓고 팔장 건네기 보였다.

어머니는 이물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시는지 말거나 잠잠만 순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팔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째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골짜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이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차태에서 막막 일어서려 할 때였다.

○ 관우아이!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찢어졌다. 적절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앞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불렀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법환과 푸르름으로 흘러나오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머니가 냉랭하면서도 돌며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삼켰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는 눈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돌아다보았다. 45-4

○ 관우아이! 아직 모두메로 돌아가지. 누크 이부지왕 관우가 일어나 기다려줬냐. 더 후회하지 전에 세계에게 점으로 가아 관단 딸더이!

어머니는 나직히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얻을 쉽지리 가버릴 수가 없었다. 45-5

- 일진우, 「눈이 요면」 -

43. 위글의 저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 ㉢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 ㉣ 저술자가 ~~관우의~~ 관우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 저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16 / 16

4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 ㉡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 ㉢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 ㉣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 ㉤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눈이 요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변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한 예감,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동정한 행동을 이기한다. 45

㉠ ㉠에서 '어머니'가 뒤통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 '그에게 불경함을 느끼게 하여 그가 마음을 편하게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45 미안함, 고맙음.

㉣ ㉣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을' /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생경함을 느끼게 하는군.

㉤ ㉤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져오 하는 것은 / '외가와 현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문항 분석

43. <서술상 특징> .. 사전, 권, 사생활.

㉠ 특징인물(2=관우) → 리상(계명선, 무관선)

44. <소재의 기능>

구구 = 세세히 서술.

45. <보기>를 통한 설명이해.

→ 간접적 → 인물의 심리 주문. (응답대인!)

⇒ 문맥(관우)는 문맥 문이!!



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총정리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reflections or insights.